

격	정	없	食	
---	---	---	---	--

심	층	인	터	뷰
---	---	---	---	---

■ 2018.09.13 ~ 2018.09.20 ■

# # Case 1

나이 : 20대 초반

성별 : 여성

현재 알레르기 : 밤(날 것), 밀, 콩, 견과류 (아몬드, 호두, 땅콩), 털 있는 과일(키위, 복숭아)

과거 알레르기 : 조개

특이사항 : 위 내시경 할 때 견과류 알레르기로 인해 주사를 모두 변경

## 일상의 어려움

- 카페에서 견과류 토핑 제외 요구
- 복숭아 먹으면 입안이 간지러움
- 복숭아 근처에서 재채기
- 생 밤 먹으면 인후부 부음
- 알레르기 표 확인하는 편
- 의심스러운 음식 사전 기피
- 고급 레스토랑 방문
- 뒷풀이를 간다면 얘기하고 먹지 않음 / 다른 걸 시킴 / 자리를 피함

## 마켓

- 비싸더라도, 알레르기 보유자를 타겟팅한 제품 선호.
- 알레르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배려해줬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옴

## 필터링 서비스

- 서비스 사용 의사 있음
- 신라호텔, 강남역 스페니쉬 레스토랑

## 레시피

- 2세를 낳는다면 이용할 의사 있음.
- 현재는 안 들어간 레시피를 네이버에서 치는 것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 (실제로 해 본적은 없음)

# # Case 2

나이 : 50대 중반

성별 : 남성

현재 알레르기 : 갑각류, 조개, 새우,  
오징어, 게

특이사항 : 비린 음식이나 갑각류를  
먹으면 온 몸 전체에 알레르기 반응.  
빨갱게 올라오고 피부에 물집이 생김.

## 일상의 어려움

- 회식 때 오징어를 먹고 손에 알레르기가 올라왔음. 다른 사람이 오징어 메뉴를 먹자고 해서 먹게 되었음.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먹었으나 알레르기가 발현함.
- 빼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메뉴가 나오면 알아서 빼서 먹음. 갑각류 먹을 때 피부에 알레르기가 발생. 갑각류 뿐만 아니라 비린 음식을 먹을 때에도 알레르기 발생.
- 단체로 식사할 일이 있을 때, 다른 메뉴를 고르긴 하지만 그러한 선택권이 없을 때 알아서 빼서 먹거나 그냥 먹는 편. 다른 메뉴 고를 수 없을 때의 경우 꽤나 있음. 이러한 경우 음식을 먹고 약으로 가라앉히자 하는 생각으로 그냥 먹을 때도 있음.

## 필터링 서비스

- 사용 의사 있음
-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는 식당을 알지는 못함

## 레시피

- 사용 의사 있음

# # Case 3

**현재 알레르기 :** 유제품(우유 들어간 음식), 기름진 음식(곱창)

**특이사항 :** 외식할 때 홍조 현상/여드름이 나타날 때가 있음. 밖에서 먹는 음식의 원재료를 알지 못해서 원인도 알 수 없음.

## 일상의 어려움

- 친구와 식사 약속을 할 때 인터넷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찾아보는 편.
- 블로그 후기 / 블로그 주인에게 댓글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.

## 필터링 서비스

- 알레르기 정보 제공 식당 : 수카라, 두부촌, 오리마을

# # Case 4

**현재 알레르기 : 새우**

**특이사항 :** 해물라면에 있는 새우를 안 먹으면 국물 정도는 괜찮음. 대하 3~4마리를 먹으면 반응이 오는 정도임.

## 일상의 어려움

- 직관적으로 메뉴를 선별하는 편.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받아야 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음.
- 심해지면 사용하겠지만, 식당 가기 전에 확인할 것 같지는 않음.

## 필터링 서비스

- 직관적으로 메뉴를 선별하는 편.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받아야 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음.

## 피드백

- 오이가 안 들어간 식당을 알려주면 사용할 것 같음 (단순히 알레르기가 아니라도, 맛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용 가능)
- 본인 선택 < 식당에서 조리해주었으면 함.

# # Case 5

나이 : 36개월

알레르기 : 밀가루, 우유, 계란,  
견과류

특이사항 : 6개월 때 분유를 먹고  
얼굴 부음 + 홍조 + 호흡곤란  
(아낙필라시스).  
현재는 소량 먹어도 괜찮음.

## 일상의 어려움

- 분유로 인한 알레르기 이후 '매일유업 ha분유'(우유 알레르기 보유자용) 사용.
- 두 돌까지 우유 대용 분유로 우유 대체, 이후는 두유

## 마켓

- 레시피의 재료가 일반적이지 않기에 구매할 곳을 찾기 어려움.  
때문에 마켓 이용 의사 있음.

## 레시피

- 밥을 위한 레시피를 따로 찾아보지는 않음.  
간식은 '세이프 알레르기' 카페를 참고하는 편.

# # Case 6

**알레르기 : 복숭아**

**특이사항 : 복숭아를 피부에 문지른 이후 알레르기 발생**

## 일상의 어려움

- 복숭아가 들어갔을 것 같은 음식을 피해서 먹음.

## 필터링 서비스

- 복숭아가 들어갔을 것 같은 음식을 피해서 먹음.
- 하지만, 필터링 서비스가 있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음.
- 알레르기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사용할 듯.

## 마켓

- 일반 제품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식품 선호.
- 알레르기가 심할 경우에는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병원을 다녀와야 함. 병원비와 고통으로 인해 고생하는 것보다 피하는게 낫다고 생각.

## 피드백

- ‘화해’ 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의 화학물질을 표기하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음.  
(미국에서는 카라멜색소가 식품 금지성분)

# # Case 7

나이 : 35개월

성별 : 남자

알레르기 : 난백(4단계), 난황(2단계), 오보뮤(4단계)

특이사항 :

캡 검사상으로 아낙필라시스가 올 수 있는 수치라고 들음.

## 일상의 어려움

- 주변에서 먹여야 낫는다는 의견으로 인해 힘들.
- 아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언사.
-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당이 거의 없음.
- 외식을 꺼리는 편.
- 집에 계란이 없으니 반찬의 질이 떨어짐.

## 레시피

- 레시피를 찾아보지는 않음. 계란 알레르기 한 가지이기에 조리시 큰 어려움이 없음.
- 베이킹은 비건 베이커리 이용
- 알레르기 카페는 차단이 너무 많음.
- 단일 알레르기는 볼 자료가 별로 없음.
- 사용할 의사 매우 있음.
- 지나친 소통은 신뢰성을 낮춤. 대화창 정보면 충분.
- 신뢰성 있는 사람의 레시피 선호.

# # Case 8

**나이 : 18개월**

**알레르기 : 밀, 유제품, 갑각류,  
견과류, 카놀라유, 포도씨유, 망고,  
딸기, 향생제**

## 레시피

- 마늘 때문에 쌀부침가루 불가.
- 밀이 들어가서 시판 간장 불가능.
- 유명한 아기김 (해의자태)
- 멸치로 칼슘 대체
- 부족한 영양분은 영양제
- 영양제마다 성분이 틀려서 카페에서 확인. 하지만 신뢰성 낮음
- 라라스팜 면두부(두부만 쓰는 제조시설, 콩으로 만듦)
- 쌀간장, 쌀된장(유기농명가 현리)
- 아이허브 직구
- 글루텐프리 가루가 한국 글프리 업체에서만 판매. 비싸고 불안해서 아이허브 대리구매.
- 밀가루 대신 글루텐프리가루, 전분 누룽지가루
- 오징어로 어묵 제조

# # Case 8

**나이 : 18개월**

**알레르기 : 밀, 유제품, 갑각류,  
견과류, 카놀라유, 포도씨유, 망고,  
딸기, 향생제**

## 일상의 어려움

- 아이가 스스로 알레르기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불안. 교사가 본다고 하더라도 아이들끼리 바꿔먹으니 유치원에 보내기 두려움. 집에서 보는 중. 육아휴직 중이기에 복직을 해야 하지만, 불가능 해서 우울증이 생김.
- 식당에 갈 때는 음식을 챙겨서 감.
- 아이가 호기심이 많은 시기라서 혼내면서 먹여야 해서 힘들.
- 마트에서 떡을 구매하려는데, 밀이 들었는지, 제조 시설에 밀이 있는지 모름.
- 삼겹살 배달 집에 이것 저것 묻고 빼달라고 하고, 따로 해달라고 하니 이상한 취급을 받음.
- 엄마도 우울증이 걸림
- 다른 사람도 많이들 그렇다고 함.
- 애 안고, 간식 챙기고, 도시락 두 끼를 들고 다니면 몸이 무거움.
- 주변에서 자꾸 먹어야 한다고 말해서 가족간의 불화.

# Conclusion



## »필터링

- 단일 알레르기 보유자 /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보유자는 현재 알레르기 정보에 대한 필요성 자각이 낮은 편임. 하지만,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, 사용할 의사가 강함을 표현함.
- 다양한 알레르기 보유자 /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보유자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임.

## »마켓

- 기존 제품(알레르기 정보 라벨에 표시)와 알레르기 보유자를 타겟팅한 제품 중 후자에 선호도가 높음.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.

## »레시피

- 기존 카페는 소위 '등업' 과정을 거쳐야 해서 불편함.
- 신뢰성 있는 레시피가 있으면 사용 의사가 더 높다고 응답.